

# 韓服 着用 實態에 관한 調査 研究

張錫香

- I. 序論
- II. 研究方法
- 1. 調査期間
- 2. 調査範圍

- 3. 資料處理方法
- III. 本論
- IV. 結論 및 提言

## I. 서 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기계문명을 배경으로한 산업화사회로의 이행은 우리들 인간의 의, 식, 주, 패턴을 바꿔 놓았다.

우리 한국인이 즐겨 입던 한복도 서양문화의 이입(移入)에 따라 그 형태가 차차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자꾸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한복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 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복에 대한 의식조사.
- ② 각자가 갖고 있는 한복의 양.
- ③ 텔레비전의 역사극에 나타나는 한복의 고증적(考證的) 확실성 여부.

등에 두어 이 조사의 결과가 한복의 개선과 활용 그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데 두었다.

현재 우리는 급속하게 발전한 섬유지를 산업으로 해서 과거에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풍족한 의(衣)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농촌

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어 의생활의 평준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복의 많은 착용으로 해서 우리의 의복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됐다. 이에 우리 고유의 복인 한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옷이 차지하는 의례적인 가치등을 좀더 알아보고자 제주도를 제외한 각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가지고 한복착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기간

1977년 2월 10일~2월 21일

### 2)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서울의 13개 행정구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를 임의로 추출하여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해석가치가 없는 응답자의 것을 제외하면 대상자의 87.9%인 378명으로 이를 기초로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을 보면 表 1 表 2, 表 3과 같았다.

년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대상자	101(26.8)	104(27.5)	108(28.6)	44(11.6)	16(4.2)	5(1.3)	378(100%)

表 1. 대상자의 연령

학력	무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합계(%)
대상자	37(9.8)	50(13.2)	55(14.5)	160(42.4)	76(20.1)	378(100%)

表 2. 대상자의 학력

직업	회사원	상업	공무원	교사	주부	무	학생	농업	합계(%)
대상자	11(2.9)	40(10.7)	6(1.6)	12(3.2)	224(59.2)	72(19.0)	6(1.6)	7(1.8)	378(100%)

表 3. 대상자의 직업

### 3) 자룡 처리의 방법

서면질의 방식으로 얻어진 자료는 분류 내용에 따라 백분율 계산을 하였다.

부적당한 면폐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겨울에 착용율이 높은 이유는 방한효과가 좋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III. 본론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분석적 고찰

### 1. 한복의 착용실태면에서 본 의견

1) 한복을 즐겨 착용하는 때는 파티나 예복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다가 응답자의 56%나 되며, 평상시에 착용하는 사람은 8.7%밖에 안되는 적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표 4)

한복을 착용하는 때	수	%
평상시에 한복을 입는다.	33	8.7
파티나 예복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다.	212	56.1
외출할 때만 입는다.	103	27.2
기타	30	8.0

표 4. 한복을 착용하는 때

파티복 예복으로 착용하는 율이 높은 것은 고유의상으로서의 활동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평상시 사용율이 낮은 것은 일상생활에 부적당하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 표 5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계절을 보면 계절과는 관계없이 착용하는것이 32.0%로 제일 높은 율이며 그 다음이 겨울 24.4%, 여름 2.0%로 여름이 제일 적다.

여름에 착용하는 율이 낮은 것은 기후관계로 한복을 착용하면 속옷착용등에서 오는 방서에

착용하는 계절	수	%
봄	62	16.4
여름	8	2.1
가을	81	21.4
겨울	86	22.8
일년 내내	18	4.8
계절과는 관계 없다.	123	32.5

표 5. 착용하는 계절

3) 가족중 한복을 즐겨입는 분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제일 낮은 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할머니에게는 한복착용이 습관화되어 있는 동시에 한복착용시 양복과는 반대로 여유있어 보이는 풍성한 느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6)

즐겨 입는 사람	수	%
할아버지	46	12.1
할머니	184	48.6
아버지	15	4.0
어머니	24	32.8
기타	9	2.5

표 6. 즐겨입는 사람

4)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과 나이에 관한 설문에서는 표 7과 같이 20세 이후부터가 제일 많

고 의외로 10세 이전부터 착용한 것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내고 40세 이후부터 착용한 것이 율이 제일 적다. 이것은 한복착용이 거의 결혼 후에 많이 입는 경향으로 인한 이유로 해석된다.

출겨 입는 나이	수	%
10세 이전 부터	92	24.3
10세 이후 부터	41	10.9
20세 이후 부터	171	45.2
30세 이후 부터	60	15.9
40세 이후 부터	14	3.7

표 7. 출겨 입는 나이

5) 한복 불착용 이유로는 「활동에 불편하다」가 82.3%로 매우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이는 젊은층일수록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젊은층들은 평상복으로 양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고 또 한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어 활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수	%
활동이 불편 하다	311	82.3
기호에 맞지 않아서	28	7.4
남들이 안입으니까	28	7.4
유행옷이 아니니까	5	1.3
기타	1	1.6

표 8.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6) 어린이들에게 한복을 얼마나 입히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이 설문에서는 설날 명절 때만 입히는 율이 제일 높게 53.9%로 나타났고 반면에 거의 안입힌다가 그 다음이다. 한편 평상시 한복을 입힌다가 의외로 적어 6.3%로 나타났다. 명절 때 어린이들에게 입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적인 명절에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대로 한복을 입히는 습관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긍지를 갖게 하려는 어버이들의 마음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7) 한복착용시 신발사용은(표 10) 고무신이 대다수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복을 착용할 때는 우리의 멋진 버선을 꼭 거의 신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잘 맞고 어울리는 고무신을

아이들의 한복 착용	수	%
평상시 한복을 주로 입힌다	24	6.3
설날등 명절때만 입힌다	204	54.0
거의 안입힌다	150	39.7

표 9. 아이들의 한복착용

신발 착용	수	%
고무신	318	84.1
구두	43	11.4
두가지 다	17	4.5

표 10. 신발착용 여부

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색선택과 직물면에서 본 우리옷

1) 「한복의 옷선택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52.64%로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고, 남의 권유에 의해 택한다는 율이 3.7%로 제일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은 한복의 단점인 디자인의 단순함을 살리기 위해 자기 개성을 색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11)

색 선택	수	%
유행하는 색으로	54	14.3
제절 따라	111	29.4
내 기호에 따라	199	52.6
남들이 권하는 색	14	3.7

표 11. 색의 선택

2) 한복의 색배합은 어느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은 「아래위 같은 색을 좋아한다」가 66.9%로 제일 높은 율임이 나타났고 혼합무늬가 10.8%로 나타났다. 상하동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옛부터 우리조상들은 한복착용에 단색을 많이 이용해 왔으며 단색을 이용하는 반면 그 특징을 직물에 무늬를 넣어 사용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경향은 전래되어 오는 유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3) 한복사용직물로는 표 13과 같이 합성섬유 사용이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모시와 무명은 제일 적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합성섬

색 배 합	수	%
상 하 동 색	253	66.9
상 하 이 색	64	16.9
혼 합 무 늄	41	10.9
기 타	20	5.3

표 12. 색 배 합

유와 견직물 사용도가 높은 이유는 합성섬유는 세탁상의 편리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때문으로 생각되며 견직물 사용도가 높은 것은 동물성 특유의 광택과 질감이 한복의 우아하고 세련된 멋을 더욱 나타내 주는 이유로 생각된다.

즐겨 사용하는 직물	수	%
무 명	19	5.0
견 직 물	100	26.5
모 시	22	5.8
합 성 섬 유	229	60.6
기 타	8	2.1

표 13. 즐겨 사용하는 직물

4) 섬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복을 만드는 옷감도 다양해졌다. 이에 맵씨 세탁면에서 본 예전과의 한복의 옷감차이를 조사하였더니 합성섬유가 나온 이후 세탁이 편하다가 81%로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고 값이 싸서 좋다가 6.7% 옷감 맵씨가 없다가 5.0%로 나타났다.(표 14)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옷감에 대한 의견	수	%
세탁이 편하다.	306	81.0
세탁이 불편하다.	16	4.2
옷 맵씨가 없어졌다	19	5.0
값이 싸서 좋다	25	6.7
기 타	2	0.5

표 14.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옷감에 대한 의견

### 3. 한복 소유와 구입

1) 한복의 종류는 여러가지 많지만 본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치마 저고리 속옷과 그외에 예복에 해당되는 두루마기를 포함하여 5단계로 분류

### 第二號

조사하였다. 표 15와 같이 기본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48.4%로 제일 높고 두루마기까지 소유하고 있는 율이 23.5%로 의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착용은 자주 하지 않더라도 우리옷이기 때문에 예복(외출복)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의 종류	수	%
치마, 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버선	183	48.4
치마, 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버선, 속적삼, .	59	15.6
치마, 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버선, 속적삼, 마고자.	43	11.4
치마, 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버선, 속적삼, 마고자, 두루마기	89	23.5
기 타	4	1.1

표 15. 한복의 종류

2) 가지고 있는 옷중에 양복과 한복의 비율을 보면 한복 소유가 30%이라고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었고 70%이상 소유자가 제일 적은 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의 착용이 적은 이유때문으로 생각된다.(표 16)

양장과 한복의 비율	수	%
한복이 70% 이상	52	13.8
한복이 50% 이상	53	14.0
한복이 50% 이하	62	16.4
한복이 30% 이하	211	55.8

표 16. 양장과 한복의 비율

3) 한복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삶바느질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6%로 제일 높은 율이고 기성복 구입은 3.4%로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17) 한복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가 삶바느질 즉 맞춤이

한복 구입 방법	수	%
내손으로 만든다	26	6.9
삶바느질로 마련한다	339	89.7
기성복을 사입는다	13	3.4

표 17. 한복 구입 방법

제일 많은 이유는 요즈음, 거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 4. 속옷착용에 관한 의견

양장착용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속옷이 있듯이 한복을 착용할 때도 이에 맞는 속옷을 반드시 착용하여야만 맵씨도 있고 품위도 있어 보인다. 이에 재래식 속옷은 종류가 여러가지로 다양해 입기도 불편하다. 그래서 본 설문에서는 재래식 속옷을 현대인들은 거의 소외하는 느낌이 있지만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1) 재래식 속옷을 좋아하느냐에 대한 반응에서 좋아한다가 25.4%로 나타나고 싫어한다는 율이 74.6%로 나타났다.(표 18)

속옷의 기호	수	%
좋아 한다	96	25.4
싫어 한다	282	74.6

표 18. 속옷의 기호

2) 재래식 속옷을 좋아한다면 어떤 종류를 좋아하나 응답을 요구사항으로 했더니 속옷 고쟁이 속적삼이 응답자의 90%정도로 나타났다.

#### 5. 개량면에서 본 의견

1) 한복은 민족의상이기 때문에 고유의 복식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은 활동적 미적인 면에서 여러가지로 개량할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을 통해 한복을 개량한다면 어떤면을 개량할 것인가를 알아 보았더니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가 74%로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표 19) 그다음이 치마길이 치마폭을 개량하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치마길이가 길고 치마폭이 넓어 활동하는데 있어 많은 부자유를 느끼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데 개량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2) 저고리 고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62.4%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이고 뿌로찌를 사용한다가 33.5%로 나타났다. 이는 저고리에는 역시 고름을 매는 것이 미적인 면에서 우아하고 맵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20)

개량할 점	수	%
저고리깃	21	5.6
저고리도련	8	2.1
소매	13	3.4
치마폭	25	6.6
치마길이	28	7.4
지금그대로	280	74.1
무응답	3	0.8

표 19. 개량할 점

저고리 고름에 대한 의견	수	%
저고리고름	236	62.4
뿌로찌	127	33.6
기타(두가지 다)	15	4.0

표 20. 저고리 고름에 대한 의견

#### 6. 전통적인 측면에서 본 의견

1) 복식이란 사회변천에 따라 변화된다. 우리 복식도 그 시대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오늘날 계승되어왔다. 그러나 예전에는 옷의 여밈, 모양에 따라 그 집안을 표시하였고 계급의식을 나타내었지만 지금은 민주화됨에 따라 의생활도 민주화되어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이에 집안의 전통인 매력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더니(표 21) 전통인 매력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57.7%로 나타나고 중요시 한다가 42.3%의 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무리 시대는 민주화되어 있지만 집안전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집안 전통에 대한 의견	수	%
중요시 한다	160	42.3
중요시 하지 않는다	218	57.7

표 21. 집안 전통에 대한 의견

2) 전통적인 한복만을 입는 분에게 한복이 시대변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디자인은 그대로 간직하고 색채 장식등을 가미하여 아리랑 드레스 또는 궁중 의상으로 개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더니 팬찮다가 48.1%로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고 그다음 끌보기 쉽다가 33.86%로 나타났다. 팬찮다는 반응이 의외로 높은 것은 현시대 감각에 따라 화려하게 변화하여 활동복을 떠난 파티복 또는 명절복 예복등으로 활용착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22)

한복 모양변화의 의견	수	%
팬 찮 다	182	48.1
끌 보 기 쉽 다	128	33.9
보 기 에 좋 다	65	17.2
기 타	3	0.8

표 22. 한복 모양 변화의 의견

3) 현대인은 방한을 위하여 양복에 맞는 코트 모자, 장갑등을 사용하고 있듯이 우리조상들은 예전에는 방한을 위하여 한복에 맞는 두루마기 토수등을 사용하여 한복에 어울리는 방한을 하였다. 이에 현대인이 한복을 착용할 때 방한을 위한 복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더니 거의가 코트 두루마기를 사용하고 토수 사용하는 사람이 3사람, 조바위 남바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4사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보았더니 50세이후분들로 이러한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젊은층이 아닌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복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감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 7. 문화면에서 본 의견

### 1) 우리옷에 대한 긍지

표 23과 같이 조사자의 78%가 우리옷을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그저 그렇다는 평범하게 느끼는 율이 21.2%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옷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된다.

우리 옷에 대한 긍지	수	%
우리옷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95	78.0
부끄럽게 생각한다	3	0.8
그저 그렇다	80	21.2

표 23. 우리 옷에 대한 긍지

2) 외국에 나갈때 한복을 갖고 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표 24-⑦과 같이 고유의복이기

## 第二號

때문에 가지고 간다가 76%로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항상 입는 습관이라 가지고 간다가 6.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티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간다가 10.6%로 나타내주고 있다.

한복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표 24-⑦과 같이 착용하지 않으므로 가지고 가지 않다가 3.6%로 나타났고 외국이니까 가지고 가지 않는다가 1.3%로 나타났다. 고유의복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는 유통이 높은 것은 외국에 가드라도 민족복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을 가지고 가는 이유	수	%
고유의복이기 때문에	287	76
항상 입는 습관이어서	26	6.9
파티용으로	40	10.6

표 24-⑦

한복을 안갖고 가는 이유	수	%
입지 않으므로	15	3.6
기호에 맞지 않아서	6	1.6
외국이니까	4	1.3

표 24-⑧

3) 텔레비죤을 시청할때 한복착용을 관찰하며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관찰하며 본다가 54.8%로 나타났고 관심없다가 45.2%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한복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25)

한복의 관찰도	수	%
관찰하며 본다	207	54.8
관심없다	171	45.2

표 25. 텔레비죤 시청시 한복의 관찰도

4) 텔레비죤을 시청할때 한복착용을 관찰하고 본다면 옷모양 입는법이 옛날과 틀리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에 대한 응답은 표 26과 같이 모르겠다는 반응이 53.7%로 제일 높고 그다음으로 틀리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는 유통이 37.6%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계급의식을 떠나 착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해 지는 증거로 생각된다.

예전과의 옷입는 방법의 차이	수	%
있 다	142	37.6
없 다	33	8.7
모르겠다	203	53.7

표 26. 예전과의 옷입는 방법의 차이

5) 텔레비죤을 시청할때 한복착용이 전통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틀리나에 대한 응답에서는 복식이란 시대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 변화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저고리깃과 동정이 많이 좁아졌으며 역사극등에서는 계급의식을 무시하며 의복을 착용하는 것 같고 특히 신분에 구애없이 회장저고리를 많이 착용하고 있다고 조사대상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죤의 역사극 한복착용이 사치적인 옷맵씨로 변하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IV. 결론및 제언

1. 한복의 용도는 파티복 예복으로 사용하는 울이 제일 높고(56.1%) 외출복이 27.2%, 평상복이 8.7%로 나타났다.

한복을 평상복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우리 고유의상으로서의 우아한 맵씨를 계속 유지하고 착용시키는데는 파티복 외출복으로 더욱 발전 활용시켜야겠다.

어린이에게 명절때는 한복을 입힌다는 많은 반응(53.9%)을 보면 우리 옷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민속절이기 때문에 고유의상을 입히기 위함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자주 착용시켜 우리 옷의 긍지를 갖게하는 한편 전통적인 민속을 지켜가도록 해 주어야겠다.

2. 한복의 색선택은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울이 52.6%로 제일 높고, 계절따라(29%), 유행에 따라(14.3%)의 순서이다. 제일 낮은 울은 남들이 권하는 색(3.7%)이다. 이는 한복의 디자인이 개성미가 없고 단조롭기 때문에 자기개성에 따라 색을 선택하므로써 자기의 개성과 조화미를 이루려는데 있는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직물산업은 한복옷감의 염색, 무늬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연구발전시켜 가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3. 평소에 기본적인 한복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48.4%로 제일 높고 예복인 두루마기 까지 갖고있는 울은 23.5%로 낮은 울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복을 자주 착용하지는 안하더라도 우리 옷이기 때문에 갖고는 있겠다는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구입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맞춤복이 89.7%, 기성복이 3.4%, 내손으로 만든다가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경제 사회적인 조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류를 각자가 가정에서 만들어 입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한복은 만드는 법을 점차 잊어버릴 것이므로 전문가들은 한국민의 체형에 따른 옷 패턴과 기성복을 연구 조사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구입이용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었으면 한다.

4. 속옷착용에 대한 의견은 재래식 속옷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싫어한다가 74.6%로 더많이 나타났다.

5. 한복의 개량면에서는 지금 그대로 둔다가 74%로 높은 울을 보이고 그다음 치마길이가(7.4%), 치마폭(6.6%) 저고리깃(5.6%) 소매통(3.4%) 도련(2.1%) 무옹답(0.8%)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 치마폭을 개량한다면 폭을 좁게 길이는 짧게 하여 작업복, 활동복등으로 착용용도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우리 옷을 만들어 연구활용하여야겠다.

6. 전통적인 측면에서 본 의견에서는 옛날에는 옷의 여밈, 모양에 따라 집안과 계급의식을 나타내었지만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인 매력을 중시한다(42.3%)는 것 보다는 중시하지 않는다(57.7%)가 높은 울을 보이고 있다.

아리랑드레스, 궁중의상등으로 개량변화된데 대한 의견에서는 「팬찮다」가 48.1%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이고, 「풀보기 싫다」가 33.9%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을 볼때 전문가들은 현시대 감각에 맞는 색채배합, 장식첨가등으로 각개인의 기호에 맞게 연구발전시켜 더욱 우리 옷을 많이 착용시키도록 하여야겠다.

7. 문화면에서 본 의견에서는 우리 옷을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78%로 나타났다. 외국에 갈 때는 우리 민족복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는 울이 76%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파티복 이용이 10.6%, 항상 입는 습관이라 가지

고 간다가, 6.9%로 나타났다.

텔레비죤을 시청할때 한복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본다가 54.8%로 의외로 높은율을 보이고 있다.

역사극에서 전통적으로 틀리게 착용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급의식을 무시하고 착용하고 있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삼회장저고리를 많이 착용하고 또한 그 시대에 맞

지 않게 사치스런 옷맵씨로 바꾸어 방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매스컴에서는 전통적인 복식을 입고 방영되는 역사극등에서는 좀 더 시대적인 고증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여기에 알맞는 복식을 입힘으로써 전승된 우리복식과 그 시대를 돌아켜 볼 수 있고 또한 전통적인 한복의 미와 궁지를 갖도록 문화면에서 더욱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